

중학생의 학업성적별 자아유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전상남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Effects of Self-competence on School Resilience by Academic Grades of Middle School

Sang Nam Je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Medical Administration, Dongy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chool resilie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388 survey samples were divided into high level group, middle level group and low level group in terms of the self-rated academic grades. Data were analyzed with χ^2 ,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self-rated health, self-competence and school resilie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cademic grades. Second, the high and middle level group of self-rated academic grade showed the effect of self-competence(sport competence, self-worth) on school resilience.

Conclusions: It was suggested to develop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programs and policies were required for improvement of self-competence and the school resilience.

Key words: Academic Grades, Self-competence, School Resilience

접수일 : 2015년 9월 17일, 수정일 : 2016년 4월 6일, 채택일 : 2016년 4월 30일

교신저자 : 전상남(36040,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Tel: 053-630-1724 Fax: 053-630-1210 E-mail: jeon2014@dyu.ac.kr

I. 서론

학업성취는 우리나라 학교 청소년의 삶의 질 혹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학교성적의 하락과 같은 학업 실패에 대한 경험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자 주관적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의철과 박영신, 2008). 2014년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총 30,382명 중 32.35%가 학업과 관련되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자발적 의지로 인한 자퇴 26.34%, 기타 부적응 25.26%, 가사로 인한 자퇴 6.28%, 학교규칙 위반으로 인한 자퇴 3.62%, 폭력 등으로 인한 퇴학 3.15%, 장기결석으로 인한 제적 1.58%, 대인관계로 인한 자퇴 1.42%로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으로 인해 중단한 것보다는 높지 않았다(교육부, 2014). 현재의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거의 전적으로 학업의 성취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문제로 고민할 수 밖에 없으며,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데 자살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성적 및 진학관련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박병선과 배성우, 2012). 이러한 현실에서 성적은 학교 생활 부적응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성적을 원인으로 한 학업 중단과 자살이라는 선택의 이유는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는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집단 따돌림, 폭력, 가출 등의 문제 행동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이다(Pelkonen 등, 2003). 이 시기는 새로운 역할 부과와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 문제행동에 대해 대응이 취약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원희욱 등, 2015).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효율적으로 학교의 여타

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가치를 스스로 느끼며, 문제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자아유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유능감이란 자신감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성취영역에서 자아유능감이 있고,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송치경, 2011). 또한 자아유능감은 특정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정도이다(김대욱, 2002). 그런데 이러한 자아유능감 역시 학교 성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형성되고 있다. 자아유능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 및 자기자신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학습부진에 빠지게 되며 학습부진은 자아개념을 손상시키게 된다. Lipschitz-Elhawi와 Itzhaky(2005) 및 송승민과 이유현(2012) 등의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아유능감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존중감과 성적은 대부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들을 볼 때 성적은 자아유능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아개념의 손상은 좌절에 의한 비행과 탈선, 학교 부적응과 기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학교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는 학문적 개념이 학교 적응유연성이다. 학교적응유연성은 학생이 한 개인으로서 친구와 교사, 학교생활과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거나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아유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해 불만족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석기, 2009; 원희욱 등, 2015).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결국 성적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이로 인한 자아의 미성숙과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 결국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성적과 자아유능감과의 관계, 자아유능감과 학교적응 유연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학업 성적별로 자아유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다르게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개인이 인지한 성적에 따라 자아유능감의 네 하위영역(사회유능감, 스포츠유능감, 신체유능감, 자기가치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 보고, 학업 성적별로 자아유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서울 00구 지역 2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400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8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성적, 자아유능감(사회유능감, 스포츠유능감, 신체유능감, 자기가치감), 학교적응유연성을 측정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관적 성적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에 포함된 중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정도이다. 주관적 건강은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못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을 나타내는 측정도구로 사용한 이유는 주관적 건강은 건강위험의 타당성 있는 측정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Idler와

Kasl(1991)은 주관적 건강 평가는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인지된 성적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본인의 성적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2) 자아유능감

중학생들의 자아유능감의 측정을 위하여 Harter(1982)가 8세 이상의 어린이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유능감 측정도구(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PCSI)를 기초로 하여 김대욱(2002)과 송치경(2011)이 내용타당성과 구성타당도 검증을 거쳐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 전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활용하였다. 자아유능감 척도는 친구와 관계를 인식하는 사회적유능감(4문항), 운동의 능력과 선호도에 관련된 스포츠유능감(5문항), 외모와 신체 이미지와 관련한 신체유능감(6문항),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 모습과 행동에 대한 자아가치감(5문항)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중 선택하게 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간 5점만점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유능감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송치경(2011)의 연구에서는 영역별로 신뢰도를 산출하지 않고 20문항 전체를 가지고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0.82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유능감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0.798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유능감은 0.931로 나타났다. 신체유능감의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0.705로 나타났으며, 자기가치감은 0.742로 나타났다.

3) 학교적응유연성

중학생들의 자아유능감의 측정을 위하여 Hernandez(1993)의 모형을 바탕으로 박현선(1999)이 수정·보

완하여 작성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담임교사와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참여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전문가 3인에게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받은 후 사용하였다. 총 22개 문항으로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중 선택하게 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적응유연성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같은 도구를 사용한 한경진(2011)의 연구에서는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0.82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0.789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중학생의 학업성적별로 자아유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Window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중학생들의 성적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정도 등의 빈도분석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적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업성적별로 자아유능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의 각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성적별로 자아유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응답자의 성적에 따른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정도에 대한 차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성적에 따른 성별간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8.5%,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5.6%,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6%로 나타나, 여학생의 상위권 24.2%, 중위권 66.4%, 하위권 9.4%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적에 따른 학년별 차이를 보면 1학년의 경우, 상위권 31.8%, 중위권 60.9%, 하위권 7.3%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는 상위권 24.2%, 중위권 63.6%, 하위권 12.1%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는 상위권 21.3%, 중위권 61.3%, 하위권 17.5%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성적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적에 따른 건강정도의 인지 차이를 보면, '건강하다'고 답한 학생은 상위권은 29.5%, 중위권은 60.9%, 하위권은 9.6%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상위권은 13.0%, 중위권은 69.6%, 하위권은 17.4%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건강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상위권은 11.8%, 중위권은 58.8%, 하위권은 29.4%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성적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성적			χ^2	
	상	중	하		
성별	남(n=144)	41(28.5)	80(55.5)	23(16.0)	5.626
	여(n=244)	59(24.2)	162(66.4)	23(9.4)	
학년	1학년(n=110)	35(31.8)	67(60.9)	8(7.3)	6.590
	2학년(n=198)	48(24.2)	126(63.7)	24(12.1)	
	3학년(n=80)	17(21.3)	49(61.2)	14(17.5)	

단위 : 명(%)

구분	상	성적		χ^2	
		중	하		
주관적 건강 정도	건강함(n=302)	89(29.5)	184(60.9)	29(9.6)	15.438***
	보통(n=69)	9(13.0)	48(69.6)	12(17.4)	
	건강하지 못함(n=17)	2(11.8)	10(58.8)	5(29.4)	
합계		100(25.8)	242(62.4)	46(11.8)	

* p<0.05, ** p<0.01, *** p<0.001

2. 성적에 따른 자아유능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성적에 따른 자아유능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유능감, 스포츠유능감, 신체유능감, 자기가치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를 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사회유능감은 성적 상위권이 3.84점(S.D=0.75), 중위권이 3.70점(S.D=0.61), 하위권이 3.57점(S.D=0.71)점으로 상위권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스포츠유능감은 3.23점(S.D=1.15), 중위권이 2.97점(S.D=0.57), 하위권이 2.72점(S.D=0.99)점으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신체유능감은 3.50점(S.D=0.59), 중위권이 3.16점(S.D=0.56), 하위권이 2.98점(S.D=0.57)점으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아유능감의 마지막 영역인 자기가치감 역시 상위권이 3.81점(S.D=0.56), 중위권이 3.52점(S.D=0.54), 하위권이 3.25점(S.D=0.55)점으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성적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은 상위권이 4.31점(S.D=0.93), 중위권이 4.26점(S.D=0.68), 하위권이 3.96점(S.D=0.57)점으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 성적에 따른 자아유능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구분	성적(평균±표준편차)			F	Duncan
	상(n=100)a	중(n=242)b	하(n=46)c		
자아유능감					
사회유능감	3.84±0.75	3.70±0.61	3.57±0.71	2.852	a>b>c
스포츠유능감	3.23±1.15	2.97±0.57	2.72±0.99	4.482*	a>b>c
신체유능감	3.50±0.59	3.16±0.56	2.98±0.57	17.077***	a>b>c
자기가치감	3.81±0.56	3.52±0.54	3.25±0.55	18.532***	a>b>c
학교적응유연성	4.31±0.93	4.26±0.68	3.96±0.57	3.392*	a>b>c

* p<0.05, ** p<0.01, *** p<0.001

3. 성적별 자아유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델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유능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유능감, 스포츠유능감, 신체유능감, 자기가치감, 학교적응유연성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먼저, 사회유능감을 다른 영역의 자아유능감 및 학교적응유연성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치감이

정(+)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0.479$). 스포츠유능감은 학교적응유연성과 다른 영역의 상관관계보다 정(+)적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0.750$). 신체유능감은 자기가치감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0.575$). 마지막으로 자기가치감은 학교적응유연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0.418$).

<표 3> 자아유능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의 상관관계 분석

		자아유능감				학교적응유연성
		사회유능감	스포츠유능감	신체유능감	자기가치감	
자아유능감	사회유능감	1				
	스포츠유능감	0.326***	1			
	신체유능감	0.350***	0.466**	1		
	자기가치감	0.479***	0.349***	0.575***	1	
학교적응유연성		0.291***	0.750*	0.202***	0.418***	1

변수들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0.9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조선배, 1996), 본 연구의 가장 큰 상관계수는 0.750로 나타나 전체 변수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 자아유능감의 하위영역인 사회유능감, 스포츠유능감, 신체유능감, 자기가치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4>. 분석결과,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스포츠유능감($\beta=-0.301$)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가치감($\beta=0.305$)은

학교적응유연성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18.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위권인 학생의 경우도 스포츠유능감($\beta=-2.117$)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적으로, 자기가치감($\beta=0.435$)은 학교적응유연성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 중 1학년($\beta=0.199$)에서 학교적응유연성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27.7%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권인 학생은 자아유능감의 네 하위영역이 학교적응유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자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적별 자아유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상위권 성적		중위권 성적		하위권 성적	
	B	β	B	β	B	β
성별 (여성=0)	-0.221	-0.117	-0.033	-0.023	-0.489	-0.304
1학년	-0.404	-0.208	0.304	0.199*	0.135	0.064
2학년	-0.020	-0.011	0.190	0.139	-0.036	-0.022
3학년	1		1		1	
건강 정도						
건강함	0.065	0.022	0.318	0.199	0.120	0.072
보통	0.420	0.130	0.360	0.210	-0.151	-0.082
건강하지못함	1		1		1	
사회유능감	0.248	0.202	0.108	0.096	0.157	0.138
스포츠유능감	-0.242	-0.301*	-0.097	-2.117*	0.096	0.117
신체유능감	-0.027	-0.018	0.098	0.080	-0.185	-0.130
자기가치감	0.501	0.305*	0.546	0.435***	0.460	0.313
R ²	0.256		0.304		0.288	
수정된 R ²	0.181		0.277		0.110	
F	3.438**		11.242***		1.615	

* p<0.05, ** p<0.01, *** p<0.001

IV. 고찰 및 결론

우리 학생들은 OECD/PISA 국제학력비교에서 매년 최상위 수준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 과목에 대한 태도 등에서 매우 저조한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은 우리 교육의 역설이자 모순이며 심각한 왜곡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석기, 2009).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학창시절의 낭만은 추억속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성적 경쟁을 통한 우수 학교의 진학이 학교 교육에서 최우선시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그간 여러 차례의 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 많은 개혁은 성공과 만족보다는 혼돈과 불만을 키워 온 것이 현실이다(양미경, 2014).

대다수의 학업 포기자들은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학교를 포기하고 있다.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여 미래 국제 시대에 경쟁하는 중요 자원을

인 학생들이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인성을 배양하며 학교 교육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및 진학 중심인 우리의 학교 교육의 현실은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실증적으로 성적에 따라 자신감 정도인 자아유능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와 성적에 따라 자아유능감의 어느 영역이 과연 학교적응에 달리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향후 학교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에 따른 건강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건강한 학생 중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답한 학생이 29.5%로 건강하지 못한 학생이 상위권이라고 답한 학생 11.8% 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건강한 학생들은 성적이 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6%로 나타났지만, 건강하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답한 비율이 29.4%로

나타나 3배 이상 많았다. 먼저 신체적 건강의 측면에서 볼 때 Kim 등(2003)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체력과 건강이 비례한다고 볼 때, 체력이 좋을수록 적극적인 사고와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건강과 관련해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학업성적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연주(2007)의 연구를 통해 정신적 건강 역시 성적이 차이를 보이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 정신적 건강함은 학업에 필요한 체력, 인내력, 집중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좋은 학업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적에 따라 자아유능감의 4개 하위영역인 사회유능감, 스포츠유능감, 신체유능감, 자기가치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해보았다. 결과적으로 성적 상위권 그룹, 중위권 그룹, 하위권 그룹 순으로 사회유능감만을 제외한 자아유능감 3개 하위영역과 학교적응유연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유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아유능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성과가 더 좋다는 이광순(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내신등급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부적응의 수치가 줄어든다고 보고한 조은정, 이혜경(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시말해, 성적이 높을수록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며,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 성취 태도, 학교 흥미, 학교 규범 준수 등의 학교에서 요구하고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학교적응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성적별로 자아유능감 4개 하위영역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 상위그룹과 중위그룹 학생들에게서 자아유능감 4개의 하위영역 중 스포츠유능감에서는 부(-)적으로 자기가치감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학교적응유연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상위권 그룹 및 중위권 그룹 학생들의 스포츠유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홍준희와 이수연(2008)의 연구결과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리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체육수업에 대한 기피가 나타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입시와 관련한 과목들이 중요시 되다 보니, 입시에 필요한 과목 경쟁에 있어 스포츠와 관련한 자신감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자기가치감은 타인에게 갖는 본인 스스로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좋은 성적은 자기가치감을 높이는 것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보다 잘 적응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좋은 성적은 다른 부분보다도 자신의 가치감을 높이며,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잣대가 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성취정도는 자신감을 증가시키며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체발달을 위해 운동과 같이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스포츠유능감은 상위권 학생들이게는 오히려 학교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만을 위해 탄생된 것이므로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학교에는 교육 이외의 기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양미경, 2014). 중학생 시기는 인격형성과 신체 기능의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학교와 관련있는 교사, 학부모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은 학생들 대부분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므로 학교 안에서의 올바른 청소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무한 책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줄을 세우는 것이 단순히 성적을 가지고 서열화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성적 위주

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운영 및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에 있는 일부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이의 결과를 모든 중학생이 갖는 인식이라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본을 확대하여 보완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성적에 따른 자아유능감, 학교 적응유연성의 차이 및 영향 요인들을 본 것이므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 학교적응유연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다른 영향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성적 및 건강정도는 실제 측정된 자료가 아닌 응답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기입된 것이다.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욱. 초등학교 체육활동참여가 자아유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용인: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2.
- 김의철, 박영신.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008;14(1):63-109.
- 교육부. 초중고학업중단 현황 발표 보도자료(2014. 9.4). 세종: 교육부, 2014.
- 박병선, 배성우.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2012;14(3):215-238.
- 송승민, 이유현. 초등학교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19(9):25-46.
- 송치경. 고등학교 체육수업만족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아유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1.
- 양미경. 학교의 주요 기능별 중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교육원리연구 2014;19(2):173-199.
- 원희욱, 임지영, 손해경. 자아존중감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16(4):2684-2690.
- 이광순. 모델링 훈련이 자기유능감과 과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2008;11(1):1-19.
- 이석기. 학교 부적응 실태 조사 및 자아존중감 향상 방안 제언. 전인교육학회 2009;1:281-315.
- 조선배.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영지문화사, 1996.
- 조은정, 이해경. 청소년패널연구의 위험행동요인, 학교요인, 가족요인에 따른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학연구 2007;14(4):59-80.
- 한경진.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 홍준희, 이수연. 성적과 행동유형에 따른 여고생의 체육수업 회피요인. 스포츠과학연구소논총 2008;26:93-104.
- 이연주. 초기 청소년기의 우울 성향과 학교 성적과의 관련성[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7.
- Harter S. The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1982;53:87-97.
- Hernandez LP.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t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USA.: Stanford University, 1993.
- Idler E, Kasl SV. Health perceptions and survival: Do global evaluations of health status really

- predict mortali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1991;46:55-65.
19. Kim H. Y., Frongillo EA., Han, S. H., Oh S. Y., Kim W. K., Jang Y. A., Won H. S., Lee H. S., & Kim S. H. Academic performance of Korean children of associated with dietary behaviors and physical status.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03;12(2):186-192.
20. Lipschitz-Elhawi R., Itzhaky H. Social support, mastery, self-esteem and individual adjustment among at-risk youth. *Child & Youth Forum* 2005;34(5):329-345.
21. Pelkonen M, Marttunen M, Aro H. Risk for depression: a 6-year follow-up of Finnish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03; 77(1):41-51.